

간염에 걸리기 쉬운 사람이 있다?

간염에 걸리기 쉬운 타입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모두 놀랄 것이다 그러나 만성습진을 앓고 있는 사람이 B형간염에 걸리기 쉽다는 사실은 자명한 것이다. 이것은 언제나 습진이 있으면 상처 입기가 쉬워 그 상처로부터 바이러스가 감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옛날에는 머리 염색약 등의 염료가 간장병의 원인이 되었다고 한다 염료 속에 들어 있는 비소가 원인으로, 염료를 먹고 자살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독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의 염료에는 비소 등은 들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머리 염색약 성분의 일부가 알레르기를 일으켜 습진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바로 이것을 주의해야 한다

같은 이야기로, 합성세제를 사용한 경우에도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인과 관계가 확실치 않으므로 뭐라고 단정을 내릴 수는 없지만, B형간염의 특징을 생각해 보면 젊은 여성은 특히 주의할 해야 한다.

한편, 요즈음엔 의료계 종사자 사

이에 감염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바이러스가 캐리어, 환자에서부터 의사, 간호원에게, 더 나아가 그 가족들에게 점점 넓게 퍼져 나간다 또 성관계 때 점막을 통해 감염된다 에이즈를 앓고 있는 동성연애자 사이에 B형간염 환자가 많다고 알려지고 있으며, 침속에 소량 포함되어 있는 간염 바이러스로 인해 치과외사도 많은 수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A형간염 환자는 황달이 없어졌다 해도 치료되었다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B형간염에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A형, B형 어느 쪽이든 걸리게 되는 것을 중복감염이라고 한다.

요컨대 어린아이 때 A형간염에 걸렸던 경우, 자라면서부터는 B형간염에 걸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 물론 B형간염의 경우도 황체가 생기면 두 번 다시 걸릴 염려는 없다 만약 두 번 감염된 경우라면 A형간염과 B형간염 두 가지에다 감염된 경우를 말한다 최근엔 여기에 비A·비B형간염이 추가되어 3중 간염이 되는 경우도 있다

